

Exclusive Syntactics 1.0

서점에 가보면 수많은 외국어 영역 수험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단락독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영어를 언어로써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른다는 점에서 아주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익히려면 **문장을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구문해석능력이 뒷받침** 되어야만합니다.

이 교재는 저의 수험생 시절 동안 영어를 공부하면서 어려워했던 지문들을 선별해서 해석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의 유형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교재입니다.

수험생활을 마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했던 고민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교재가 그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지은이

1004bio 한동대학교 12

Part I. 상황별로 분류한 구문

이번 장에서는 독해할 때에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구문들의 올바른 해석전략을 학습합니다.

익숙한 어휘, 생소한 의미

독해를 하다보면 분명 아는 단어인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뜻과 다르게 쓰인 경우이죠.

From a consumer's perspective, walking away from a shop empty handed does not fully express the detailed character of specific dissatisfactions; nor can non-purchase communicate any sense of what this or that consumer might have been prepared to pay for. If all we know or are concerned about in our relationship to a product is the price, then 'choice' becomes a perfunctory act.

저는 이 지문을 읽을 때 **communicate** 가 나온걸 보고 ‘~와 소통하다’ 라는 의미로만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치사 **with**와 함께 쓰일 때만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 글에선 타동사로서 지식, 정보 등을 ‘전달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해석이 완전히 꼬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어휘가 익숙하지 않은 뜻으로 사용된 경우 해석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로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가 타동사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쓰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의 동사가 같은 어법으로 쓰이는데도 다른 뜻을 지니는 경우도 있구요 아예 어법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테마를 가지고 공부해보겠습니다.

According to Immanuel Kant, the moral worth of an action consists not in the consequences that flow from it, but in the intention from which the act is done.

consist of 만 알고 있어서 **consist in** 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People in different cultures have very different traditions regarding family meals. Still, it seems safe to say that the ideal purpose of family dinners, which is not always realized, is to enjoy and to enhance family relationship.

동사 **realize**를 “notice” 알아차리다 라는 뜻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이 문장의 의미를 정말 파악하기 힘들니다.

make something really occur 이런 뜻으로, ‘실현시키다’ ‘실천시키다’ 정도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regarding이 ~에 관하여 라는 뜻의 전치사라는거 놓치면 안되구요.

When ninety-six volunteers were shown a list of familiar banks and then asked whether a familiar but non-listed banks was on the list, seventy-one percent of them said yes.

[11.10교.25]

were shown a list

4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표현이라 그래요.

3형식의 경우 목적어가 주어로, 주어가 목적어로 깔끔하게 변환?이 되지만 4형식의 경우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를 수동태로 바꾸면 ‘간접목적어를 주어로 내세운 경우’와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내세운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4형식 문장에서 직접목적어는 대체로 ‘사람’, ‘큰 그림’, ‘동작적인 것’이 되구요, 간접목적어는 ‘사물’ ‘구체적인 것’이 됩니다.

They(실험의 주체) showed ninety-six volunteers a list of familiar banks

이렇게 4형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How you eat may have as much bearing on your health and your weight as what you eat. This may well be the deeper lesson of the so-called French paradox: the mystery (at least to nutritionists) of a population that eats all sorts of supposedly lethal fatty foods, and washes them down with red wine, but which is nevertheless healthier, slimmer, and slightly longer lived than we American people are.

have bearing on ~ : ~와 관련이 있다

병렬구조, 구심점을 찾아라!

and, but, 등의 접속사가 나오면 세모모양 그려! 그리고 그 전후의 구조가 똑같아야해!

중학교 시절부터 영어시간마다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이죠, 이 내용을 모르는 수험생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구문이지만 지문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병렬구조의 구심점이 되는 곳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병렬구조의 구심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면 의미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By placing us outside ourselves, travel provides us with the distance required to see what it is we are habitually doing and the anonymity to risk new ways of being in the world.

provides us with the distance required to see what it is [that] we are habitually doing **and** the anonymity to risk new ways of being in the world.

The sex ratio will be favored which maximizes the number of descendants an individual will have and hence the number or gene copies transmitted.

이 문장은 병렬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다가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떨어져있어서 해석하기 아주 까다롭습니다. 먼저 이 문장의 뼈대는 The sex ratio will be favored.입니다. ‘그 성비가 선호될 것이다’. 그 뒤에 나오는 which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은 선행사가 The sex ratio 인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선호되는 성비가 무슨 성비냐면, (개개인이 갖게 될 자손의 수) and (전달되는 복제 유전자의 수)를 극대화하는 성비’

입니다. maximize를 구심점으로 병렬구조라는 거 보이시나요?

The sex ratio (which) maximizes the number of descendants [(which) an individual will have] and hence (maximizes) the number or gene copies transmitted / will be favored

The result is the poverty trap, in which extreme poverty keeps vital, even life-saving, technology out of the reach of the poor, and the lack of that technology keeps the poor unproductive and condemns them to continued poverty.

A way to get things done more efficiently and get better results is to do the right thing at the right time of day. [11.6평.22]

어순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독해할 때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말 표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읽어나가는 동시에 영어의 어순에 맞게 ‘직독직해’ 해야한다는 걸 모든 수험생이 다 알고 있지만 그게 힘든 이유가 바로 ‘우리말스러운’ 순서로 배열되어있기를 예상하면서 읽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십수년간 한국어를 써오면서 굳어진 사고방식을 살짝 깨주면 독해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 책에 나온 문장들은 저와 제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문장들입니다. 이 책에 나온 문장들을 반복해서 눈으로 읽는 훈련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대 소리내서 읽지 마세요, 속발을 습관이 생기면 정말 힘듭니다ㅠ ㅠ.. 제가 그랬어요)

이번 단원에서는 각종 도치, 목적어의 위치 변화, 여러 유형의 삽입형태(부사구, comma-comma 사이의 표현) 등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게 배열된 문장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This is not a good excuse, because by the same rule he may go through any house in Edinburgh, and do what he thinks proper to be done without the owner's consent."

이건 들어줄 만한 변명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라면 저 사람은 에딘버러에 있는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는 저 사람이 생각하기에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주인과의 합의도 없이 막 해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사구 **by the same rule** 가 **because** 바로 뒤에 나와서 해석의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because** 뒤에 곧바로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가게 되어서 순간적으로 독해 속도가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전명구를 비롯한 부사 표현이 항상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합니다.

It's easy to see plagiarism when a student hands in a paper written by someone else. In fact, that student is submitting as his or her own someone else's intellectual property.

that student is submitting someone else's intellectual property as his or her own.

이렇게 쓰여있었다면 해석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쉬운 문장에서는 부사어가 맨 마지막에 몰려있었지 이렇게 중간에 튀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어에서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사실 남의 지적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 학생은 사실 자신의 것으로서 남의 지적 재산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걸 뭔가 어색합니다.

In the Turkish language we have a special tense that allows us to distinguish hearsay from what we've seen with our own eyes; when we are relating past events we could not have witnessed, we use this tense. It is a useful distinction to make as we remember our earliest life experiences reported by our parents, stories to which we listen with the same rapt attention we might pay to some brilliant tale of some other person.

셋째 줄 It is부터 볼까요?

make 다음에 as가 이끄는 부사절이 나와서 완전 당황했습니다. as가 절을 이끌면서 등장하면 문맥에 맞게 ‘~할 때’, ‘~인 것과 같이,,’ 이런 뜻으로 해석된다는 걸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by our parents, 까지가 부사절이 되구요 그 뒤에 나오는 stories 부터가 make의 목적어가 됩니다. 근데 그 stories를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을 써서 추가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Although today, child welfare service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our schools often provide care to children in need, none of these institutions has as its first priority the delivery of mental health care.

의미상 한 박자 쉬는 부분; 화제를 여는 문장(부사절), 해결하는 문장 구별하기(완전한문장)

접속사 Although 를 보는 순간 무엇이 이러저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가지는 화제를 여는 문장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하는데 잘 안보이고 comma comma 가 보이죠? Although 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할 과정을 잘 거쳤다면 복잡하게 나열된 낱말들에서 뼈대문장을 잘 찾아 낼 수 있습니다.

child welfare service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our schools 이만큼 전체가 Although 가 이끄는 여는 문장의 주어라는게 보이시나요? 그 뒤에 나오는 provide 가 동사입니다. 이어서 in need, 이렇게 여는 문장이 끝나게 되구요 끝이어 나오는 none of these~ 여기가 닫는 문장인 것이죠. 그런데 닫는 문장 안에서 또 어순의 배열이 낫서네요.

none of these institutions has the delivery of mental health care (as its first priority).

이렇게 동사 has 와 목적어 the delivery~ 사이에 as로 시작하는 전명구가 끼어들어가 있어서 독해의 흐름이 끊기기 쉽습니다.

동사 뒤에 곧바로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상당어구가 나오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전명구를 비롯한 부사 표현이 목적어의 앞으로 당겨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떠올려야합니다. 물론 자동사와 전치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가 쓰인 경우와 혼동하면 안되죠!!

You might think that with such extreme variations in habitat, fishes would be difficult to characterize.

that 다음에 갑자기 with가 나와서 당황했던 문장입니다. 전명구 with such extreme variations in habitat 가 한 꺼번에 앞으로 나온겁니다.

We can assume that in interacting with patients, friendly doctors are more likely than dominant doctors to take into account the view, feelings, and expectations the patients have about themselves, their illnesses, and their doctors.

friendly doctors are more likely to take into account the view, feelings, (중략) and their doctors than dominant doctors. 인데 동사 take into account 의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비교대상을 목적어 앞에 쓴 것입니다.

Fundamental Science is where new ideas and methods begin that later becomes commonplace.

관계대명사 that 절이 선행사 new ideas and methods 바로 뒤에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Fundamental Science is where new ideas and methods that later becomes commonplace begins.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as the urban middle class grew in size, middle-class families began to regard their children less as objects of utility and more as emerging people who enhance their parents' sense of self. Most mothers today give as their primary reason for wanting children their own need for love and companionship.

Most로 시작하는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as their primary reason for wanting children 이만큼이 한 덩어리로 보이시나요?

‘오늘날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녀를 원하는 primary한 이유로서 give 한대요. 뭘 give 하나면 need for love and companionship.

아이를 원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서 'need for love and companionship'을 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If you have lots of energy early in the morning, that is when you should schedule difficult activities, whether for you these are brainstorming, writing, or practicing.

[11.6평.22]

whether 다음에 나온 의미상의 주어 for you 때문에 가볍게 흘끗! 했던 문장입니다. whether these are brainstorming, writing, or practicing for you. 이렇게 쓰였다면 훨씬 해석하기 수월했을 것입니다.

Artificial as this process is, this is what becomes our 'identity', an identity grounded on all the superficial differences we distinguish between ourselves and others. [10.9평.21]

‘여는 문장’의 어순이 낫서네요. as this process is artificial,, 인데 형용사 보어인 artificial이 맨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If we are made to live in a small cottage and bend to the rule of an aristocrat occupying a castle, and yet we observe that our equals all live exactly as we do, then our condition will seem normal. If, however, we have a pleasant home and a comfortable job but learn **through attendance at a school reunion** that some of our old friends now reside in houses grander than ours and have more enticing occupations, we are likely to return home lamenting misfortune.

learn that some of our old friends~

through로 시작하는 부사구가 learn과 that 사이에 등장했습니다.

They noticed that the ground was much drier where the object had been.

the ground where the object had been was much drie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관계부사가 선행사의 바로 뒤에 있지 않아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의미상 한 박자 쉬어가야 하는 곳에 comma(,)가 없다!

영어로 쓰여진 글에서 한 박자 쉬어가야 하는 곳에는 필자의 재량껏 **comma**를 써서 심리적으로? 한 박자 천천히 쉬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comma**를 붙이는 것은 말 그대로 “필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박자 쉬어가야 하는 곳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저 주욱 읽어가다 보면 문장의 구조를 완전히 놓쳐서 의미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분사구문인데 ,가 안찍힘
2. If, whether, although, even though, in order to, on behalf of,, 등,, 접속사가 이끄는 절 뒤에 ,가 안찍힘

결국 ‘부사절’ 또는 ‘부사구’를 **comma**가 없더라도 뼈대 문장과 분리해낼 줄 알아야합니다.

In early human history, life was short, and in order to reproduce the human group many children had to be born.

의미상 한번 쉬어가야 하는 곳은 in order to reproduce the human group ", " 여기입니다. 부사구가 끝나는 부분 이죠.

한 박자 쉬어가야 하는 곳의 대부분은 부사절이나 부사구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부사절은 화제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할 때, ~를 위해서, ~한다면, 등등,,, 이렇게 화제가 열린 후에는 ~이다, ~해야한다. ~한다,,, 이런 완전한 문장으로 해결이 되어야합니다.

위의 문장에서는 in order to 가 이끄는 부사절이 화제를 여는 역할을 한 것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주절 many children had to be born. 이 열린 화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화제를 여는 부사구/절 뒤에 곧바로 해결문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사, 의문사 등을 통해 문장이 계속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고 위의 문장을 읽을 때 the human group (where) many children had to be born ", " [해결문장]. 이런 구조로 나올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제가 실제로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도 그 위에 해결문장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many children~이 관계대명사 where 가 생략된 또다른 수식어가 아니라 해결문장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엄청 복잡한 것 같지만 위의 사고과정은 정말 0.5초도 안되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해낸 판단입니다.

다른 예를 볼까요?

Yet of the three factors environmentalists often point to as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pollution - population, technology, and consumption - consumption seems to get the least attention.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자동사+전치사

여기서도 ~이지만 이라는 양보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 Yet이 이끄는 부사절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comma가 없는 형태입니다.

문장 처음 부분에서 언급한 three factors는 바로 인구, 기술, 소비 이렇게 세 가지 요인들입니다.

- population, technology, and consumption - ", 여기서 바로 의미상 한 박자 쉬어가야 할 부분인거 아시겠나요? 여기까지가 ‘~중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화제를 여는 부사절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 뒤에 해결문장이 오게 되죠.

1. Of 가 “~의” 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면 곧바로 “~중에서” 로 해석해본다!!

among 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of 앞에 “무엇무엇의 무엇”에서 뒤의 ‘무엇’ 에 해당될 명사 상당어구가 없는 경우이죠. 위의 문장처럼 미묘한 뜻을 전달하는 yet 과 같은 부사만 있거나 문장의 맨 앞에 나옵니다.

Of all the EBS radio shows, **입이 트이는 영어** is specially geared towards helping listeners speak English better. [EBS 라디오 ‘입이 트이는 영어’ 본문]

2. 주격관계대명사는 반드시 be 동사와 함께 생략된다!

consumption (which) seems to get the least attention. 이렇게 which 가 생략된다고 착각해서 “가장 적게 관심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consumption,,” 이렇게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도대체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건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완전 어처구니없는 실수이지만 가끔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기서 attention. 으로 문장이 다 끝나기 때문에 저렇게 주절이 아닌 또다른 수식절로 생각하는게 말도 안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주격 관계대명사 혼자서 달랑 생략되는건 있을 수 없거든요..

여기서는 진짜 동사 seems 가 현재시제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기 어렵지만 과거시제인 경우 진짜 동사가 아니라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가 생략된 과거 분사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If Kyoto is Japan's most alluring cultural face and Tokyo its most vibrant and modern expression, then for many industrial Nagoya, the country's third largest city and a port, would be Japan seen through a rain-spattered window. [Time]

for many 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석됩니다. 즉 for many / industrial Nagoya~ 이렇게 의미상 쉬어가야합니다.

That would have been an acceptable place for him to be if he had still been a producer. But as a division head, I expected him to be at the base of the mountain. [10.10교.34]

for him to be / if he had still been~ 이렇게 한 번 쉬어가야합니다.

Alternatively, talk to friends - if they are good friends they will allow you to bounce ideas off of them and talk through your work.

문장의 동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건 후치수식과 관련되는 테마인데요. 과거분사가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경우 과거형 동사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priest assigned to represent the devil's position, so to speak, brought balance to the debate.

Then the molecules in the liquid-crystal layer sandwiched between the two lenses rotate, altering the way they bend light. [07.9평.29]

과거분사의 후치수식 외에도 현재분사, 순수형용사구, 전명구, 관계사, 명사 바로 뒤에서 후치수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번째 Part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여기서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예문만 하나씩 보고 넘어갑니다.

명사와 명사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명사와 동사가 번갈아가면서 등장합니다. 즉 명사가 연달아 나오거나 동사가 연달아 나오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조차도 뭔가 어색하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낍니다.

1. 선행사와 그것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2. 선행사와 그것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 있을 때, 관계부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엔 선행사와 관계부사절의 주어가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A person who works on an assembly line is well aware of the efficiency that can be gained through repetition. The craftsmen who work on building clocks gain tremendous efficiency between **the first time a clock is built and the hundredth time.** [11.10교.24]

후치 선행사와 수식절 사이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등이 생략되면 순간적으로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However, It is disturbing to learn that **the heuristics people use** in such tasks do not respect the required statistical principles because inductive reasoning tasks are so basic.

the heuristics, people use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Rapa Nui was deforested during the centuries people lived there and much of its birdlife became extinct. [BBC]

during the centuries 와 people lived~ 사이에 관계부사 when 내지 where 가 생략되었습니다.

기타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은 딱히 어느 항목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들이라서 이렇게 따로 한 챕터를 만들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웬지 그냥 해석이 잘 안된 문장들을 담았습니다.

Unlike the modern society, the primitive society has less specialized knowledge to transmit, and since its way of life is enacted before the eyes of all, it has no need to create a separate institution of education such as the school. Instead, the child acquires the heritage of his culture by observing and imitating adults in such activities as rituals, hunts, festivals, cultivation, and harvesting. As a result, there is little or none of that alienation of young from old so marked in modern industrial societies. A further reason for this alienation in modern adult owes less to his direct experience and more to the experience of his culture than does primitive man. [11.수능.45]

저는 이 지문을 읽으면서 중간에 밑줄 친 **that** 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관계대명사인가? 동격의 **that** 접속사인가?...

그게 아니고 단순히 우리말에서 "그런" 내지는 "그와 같은" 에 해당하는 지시형용사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his**도 **one's** 로 쓰였다면 비인칭 주어라는걸 확실하게 알아챘을텐데 **his**로 써서 잠깐 당황했습니다. **it**, **one** 외에 남성대명사 **he**도 비인칭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ver since I became a Christian I have thought that the best, perhaps the only, service I could do for my unbelieving neighbours was to explain and defend the belief that has been common to nearly all Christians at all times. [Mere Christianity - C.S. Lewis]

내가 크리스천이 된 다음부터요,, 이런 생각을 쭉 해 왔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 (어쩌면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 믿음을 설명해주고 변증하는 것이라구요.. 근데 그 믿음은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항상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었어요.

쉬어가는 페이지~

23 laws of war : 전쟁의 23가지 법칙

You are not Superman.

당신은 절대 슈퍼맨이 아니다.

Recoilless rifles have recoil.

무반동포는 반동이 있다.

Suppressive fire? It won't suppress enemies.

제압사격이라고? 적을 제압하지 못한다.

Never share a foxhole with anyone braver than you.

당신보다 용감한 사람하고는 절대 엄폐호를 공유하지 마라.

Always keep in mind that your weapon was made by the lowest bidder.

당신이 들고 있는 총은 최저가입찰 생산자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If your attack is going well, its an ambush.

공격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매복이 있다는 뜻이다.

If you cant remember... the claymore is probably pointed at you.

클레이모어를 설치할 때 제대로 안 봤다면 십중팔구 적 쪽이 아니라 내 쪽으로 설치해놨다.

All five second grenade fuses are three seconds.

모든 5초짜리 시한신관은 3초에 터진다.

Try to look unimportant. The enemy may be low on ammo.

별로 안 중요해 보아야 한다. 그럼 적이 탄약을 아껴줄 수도 있다.

The easy way is always mined.

좀 쉬워 보이는 길에는 언제나 지뢰가 깔려 있다.

Teamwork is essential. It gives the enemy other people to shoot at.

팀은 매우 중요하다. 적이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쏠 테니까.

If the enemy is in range, so are you.

적이 사거리에 들어와 있다면 당신도 마찬가지로 명심하라.

Make it too tough for the enemy to get in and you cant get out.

적이 진입하기 힘들게 장애물을 깔아놓으면 꼭 내가 나가기도 힘들다.

Tracers work both ways.

예광탄은 쏘는 놈이나 맞는 놈이나 다 보인다.



The only thing more accurate than incoming enemy fire is incoming friendly fire.

적의 사격보다 더 정확한 건 아군의 오인사격이다.

Radios will fail as soon as you need something desperately.

무전기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순간 고장난다.

The bursting radius of a grenade is always one foot greater than your jumping range.

수류탄의 유효살상범위는 항상 당신이 피한 것보다 살짝 넓다.

The law of the bayonet says the man with the bullet wins.

총검의 법칙 : 탄환 남은 놈이 이긴다.

Precision bombing is normally accurate within plus/minus two Kilometers.

정밀폭격은 보통 한 2km 빗맞으면 잘 맞은 거다.

The side with the fanciest uniforms losses.

제복 멋진 쪽이 진다.

If you are short of everything except enemy, you're in combat.

당신이 적 빼고 모든 게 부족하다면, 당신은 지금 전투중인 것이다.

No plan survives the first few seconds of combat.

작전계획이란 건 도대체 전투 개시 후 몇 초 이상 가는 법이 없다.

Ammo is cheap; your life isn't.

탄환은 매우 싸다. 당신 목숨은 안 그렇다.



Part II. 문어법적으로 분류한 구문

이번 장에서는 문법적, 어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생기는 구문들을 학습합니다.

전치사 + 관계대명사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입니다.

of which, in which, upon which, within which, of whom.... 이런거죠

우리말에 없는 표현이라 가슴에 잘 와 닿지 않는 표현인데요 그냥 순서대로, 잠깐 쉬었다가 해석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문을 들어볼까요?

Note taking is one of the activities **by which** students attempts to stay attentive, but it is also an aid to memory [전국연합]

노트필기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하나임.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집중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시도 하는 거임. 또 그 뿐만 아니라 (수업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거임.

제가 직접 작문한 지문으로 하나 더 연습해보도록 합시다.

Some deny the need of aiding children in the third-world countries insisting that helping those in our community be the first priority. It sounds somewhat 'merciful' or 'considerate'. Their statement is, however, mere a shield **behind which** they attempt to hide from arrows of criticism that reveals their indifference about the matter pretending they are at least concerned about 'our children'. Yes, there are many children we have to care near us. But the problems they suffer from are rarely matters of surviving. As I know, No child in this country dies of any of followings; malnutrition, malaria, drinking polluted water, AIDS, etc.

어떤 사람들은 제 3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요. 뭐라 그러면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먼저 돕지” 이러면서.. 이 주장은 뭔가 자비롭게 들리기도 하고(우리나라의 아이들을 걱정하긴 하는거니까) 사려깊은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근데 이 주장은 그건 그냥 방패에 지나지 않는거임. **무슨 방패냐면 그 뒤에 숨어서** 그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거라구요... 자신들이 (아동 복지에 완전 무관심한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나라 아이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걸 슬쩍 내비치면서.. 물론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돌 봐야할 아이들이 많이 있긴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고통받는 문제들이 죽고사는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구요. 내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 중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명을 잃는 아이는 단 한명도 없을걸요? : 영양실조, 말라리아, 오염된 물 마시기, 에이즈...

shield = **which**입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접속사’ 이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처럼 두 개의 문장처럼 순서대로 끊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뒤에 숨어서 자신들이 아동 복지에 무관심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방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욱 끌어와서 완성된 ‘말’을 만들어서 이해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번역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하지만 독해할 때는 빠르고 정확하게 의미만 파악하면 됩니다. 반드시 한번 끊고! 순서대로 해석하세요.

We will continue our study of the annelid by focusing on some of its internal details, **many of which** we have not seen in the animals we've studied thus far. Continue reading and coloring the structures as you encounter them. You should use lighter colors for the next parts because some of them are small. [미국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 中]

계속해서 환형동물의 내부 구조(장기)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것들 중 대다수는(**many of which**) 우리가 지금까지 (**we've studied thus far**) 공부했던 동물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나머지 해석은 생략 :)

간혹 문법책을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of which = whose, in which=where 이렇게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을 관계부사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전치사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맨 뒤로 보내면 된다.

맞는 설명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해하면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의 참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안’을 의미하는 **in which** 말고 “완전 깊숙이” 의 의미가 있는 **inside which**, ‘지금 막 들어오는 상태’의 이미지인 **'into which'** 이런 걸 한 낱말로 표현해낼 수 있는 관계부사는 영어에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표현하려고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을 쓰는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모든 전치사+관계대명사 쌍이 하나의 관계부사로 바뀌는건 아니에요!!

The hearth is central to the yurt, **above which** hangs a metal cauldron.

난로는 유르트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그 위에는** 금속으로 된 가마솥이 매달려 있어요.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이 대부분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이 문장은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살짝 당황했어요. 그리고 **above which a metal cauldron is hanged**. 이렇게 수동형으로 쓰는게 좀 더 해석이 와닿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숙할 뿐이지 곰곰이 의미를 곱씹어보면 잘 이해됩니다.

There was once a wrestling master who was versed in 360 skills. He came to like one of his pupils, **to whom** he taught 359 skills over a period of time.

Boarding Schools allow students a safe space **in which** to exert greater control and independence over their daily lives.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Acts 4:12]

문법 특강 I : Whom

이번에는 전치사 뒤에 **whom**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시다. 이 부분이 관계사, 의문사, 접속사, 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는데 고생했습니다. 먼저 **whom** 이 뭔지, 목적격은 뭐고 주격은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whom do you love? 에서 [알고 싶은 것=**whom**]

You love whom. 이렇게 고치면 [알고 싶은 것=**you** 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 ‘누구’가 구체적인 대상 즉 ‘대명사’ 이자 또 동시에 의문사고, 그게 또 평서문처럼 바꾼 문장에서 동사 **love**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 인거예요. 목적격은 주격으로 쓰는 **who** 와 구별하기 위해서 **whom** 으로 쓰기로 약속한거구요.. 그러니까 의문사, 대명사, 관계사 이 세 가지가 그냥 한 가족인거예요. 이게 괜히 이름을 붙여놔서 더 헷갈린다니까요.

who is he? 에서도 마찬가지로 [알고싶은 것 = **who**‘누구’]

he is who. 이렇게 고치면 그 ‘누구’가 ‘주격 보어’가 되죠. 그래서 ‘주격’인 **who**를 쓰는거예요.

is도 동산데 **who**가 목적어 아니냐!! 라고 질문할 수 있을텐데요.. 일반동사와 **be**동사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죠!!

he is my daddy.에서 **daddy** 는 ‘주격보어’ 라고 합니다. 주어의 곧 주격 보어고 주격 보어가 곧 주어인 상태인거죠.. (주어=주격보어)....

전치사 뒤에 오는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명사”입니다. 즉 “명사”라구요,, 그 자체로 목적어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에서 관계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적격인 **whom**을 쓴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과 혼동하면 안돼요!!

She is the girl whom I used to love.

This is the boy whom we ran over yesterday night in the mall.

여기서는 각각 동사 **love**, **ran over** 의 목적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을 쓴거예요.

whom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와야 하는거 아님?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어떻게 된건지 아시겠죠? :)

예문들을 봅시다.

orbi재수학원 has around 500 students **many of whom** got a high score on last year's 수능.

오르비 재수학원에는 대략 5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중의 많은 학생들이 작년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Since July 1966, the Abbey has been located at 26 Lower Abbey Street, Dublin. In its early years, the theatre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writers of the Irish Literary Revival, **many of whom** involved in its founding. The Abbey served as a nursery for many of the leading Irish playwrights and actors of the 20th century, including William Butler, Yeats, Sean O'Casey and John Millington Synge.

Must-Know Expressions

사소한 것 같지만 모르고 있으면 독해할 때 당황하게 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가볍게 시간이 날 때마다 문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Weather and climate catastrophe of all sorts are claimed to be the inevitable result of global warming, and global warming is uniquely associated with man's activities. The reality of the threat of global warming is frequently **attested to by reference to** a scientific consensus. [2011 수능특강 p233 #27]

I wonder if you could say **a word or two** to them about how delicate new sod is. [2011 수능특강 p202 #1]

a word or two : 한 두마디 좀 해주십사..

In my experience, most people are far more productive in the morning, but there are those who differ and hit their stride later in the day. [11.6평.22]

Part 2 끝!

심터 : 수어가는 페이지예요. 힘내자구 요!!

길고 어둔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살아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길 바른길 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하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보요



멈춰선 그곳에서 주위를 만져보면

멈춰선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보면

그대와 함께하는 손 만질 수 있고

당신을 향한 음성 들을 수 있을 거야

동행 - 함부영(Markers)

Part III. 이번 장은 어휘편입니다. 단어 많이 외워야 해요 ^_^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60점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듣기를 제외한 33개의 문제 중에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나마 되는 것도 읽어내는 속도가 느려서 50번까지 읽어보지도 못한 채 답지를 내야하는 상황이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원인은 빈약한 어휘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당시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던 E사에서 출판한 W*** M*****라는 단어집을 사서 한 달 동안 계속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외국어 영역이 항상 4등급에 머물렀었는데 다음번에 본 모의고사에서 2등급,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으로 점수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르지만 단어만 잘 암기해도 독해 실력이 월등히 상승한다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단어를 효율적이고 실제 독해에 도움이 되도록 암기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어 마인드맵’인 데요 표제어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제어를 중심으로 마치 마인드맵을 그려가듯이 유의어, 반의어, 혼동되는 어휘, 왠지 느낌이 비슷한 어휘 등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아래는 제가 실제로 했던 과정입니다.

Episode 1..

(아자시간..) 아 힘들다 누가 날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는데... 위로? comfort! 동의어는 뭐가 있었지??? 아.. 동사는 기억 안나고 명사만 기억하는데 consolation?? 이 단어의 동사형이 뭐였더라? 아 그래 console 이었지! 근데 consolidate 라는 동사도 있었는데 그건 무슨 뜻이지??

(사전 찾아봄) 아하.. ‘결합하다’ ‘통합하다’ 라는 뜻이구나..

아 잠깐 지금 ‘위로하다’ ‘달라다’ 류 어휘를 떠올리고 있었지... 또 뭐가 있나?? mitigate 있었는데.. 이걸 ‘위로하다’ 라는 뜻은 아니고 완화시키다, 달라다 이런 뜻이네.. 이런 유의어로는 또 뭐가 있을까? (사전 찾아봄) alleviate 가 있구나! Soothe 도 있고,,, Seethe 라는 단어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걸 뭐야 -_- 끓어오르다? 완전 상관없는 뜻이구나.. 그래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외워둬야지 ^_^ .. 아 맞다 그리고 ‘달라다’, ‘완화시키다’ 라는 뜻을 보니까 ‘순한’ 이라는 뜻을 가지는 suave가 떠오르네? 이것도 다시한번 기억해둬야지~

Episode 2..

아나.. manifest 이거 맨날 헛갈림 -_- 동사 형용사 다 되는구나.. ‘명백히 하다’ ‘명시하다’ ‘정확한’ 이런뜻도 있구나...

precise는 ‘정밀한’ 이고 accurate는 ‘정확한’ .. ‘명백히 하다’ 아 이거 어디서 elucidate 라는 동사를 본 것 같은데(사전 찾아봄) enunciate 도 그렇고.. state 도 명시하다 뭐 이런 뜻이구나

esteem estate... estate 는 real estate 이런 collocation 으로 많이 쓰이는구나.

그냥 웬지 철자가 비슷해서 가깝 헛갈릴 적이 있었어..

-_-;;; 대박 오그라드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영사전도 활용하면서 능동적으로 외워야합니다.

요새 수능에 진짜 별의 별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완전 처음 보고 절대 수능에 안 나올거 같은 단어도 외우셔야합니다...

단어를 외울 때 다음 5가지를 함께 외워보세요

1. 유의어 및 반의어
2. 그 뜻과 웬지 어울리는 단어
(예를 들면 아까 위에서 ‘위로하다’에서 ‘완화시키다’, ‘순한’ 까지 이어진것처럼요..)
3. 사전 찾아보다가 웬지 맘에 드는 모르는 단어
(그 단어랑 사전 상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거니까 철자가 비슷한 단어일 확률이 높겠죠??)
4. 같은 어원or형태가 비슷하거나 혼동되는 어휘
5.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경우

- | |
|---------------------|
| ① 표제어&collocation |
| ② 동/유의어/반의어 |
| ③ 비슷한 테마(Theme)의 단어 |
| ④ 웬지 혼동되는 단어(①②③) |

이게 기본 틀(frame)입니다.

delay vi/vt 미뤄지다, 늦어지다/미루다, 연기하다
put off 연기하다
procrastinate 꾸물거리다
defer 늦추다, 연기하다
adjourn (회의 등을) 휴회하다, 미루다
punctual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근면한
deny 부정하다.
delicate 섬세한, 민감한, 자상한
deliberate 계획적인, 고의의, 숙고하다
deliver 배달하다
delegate 대표/대리인, 파견하다
delegation 대표단, 파견단
deploy (군사) 배치하다, 병참하다

cómfort 위로하다
console 위로하다, 위문하다
mitigate 누그러뜨리다, 완화하다
alleviate 누그러뜨리다, 완화하다
soothe 달래다, 위로하다, 누그러뜨리다
seethe 끓어오르다, 펄펄 끓다
suave 기분좋은, 유쾌한, 자극적이지 않은, 순한
mild 온순한, 상냥한
confront 직면하다, 맞서다
convert 변환하다, 개종하다

tangible 만질 수 있는, 와닿는,,
tactual 촉각의
haptic(al) 촉각의
accéssible 접근하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sensory 감각의, 감각기관의
perceive 지각하다, 느끼다
perception 지각, 인식
conceive (생각 등을) 마음에 품다
tactics 전략, 수단, 책략
tactful 재치있는, 약삭빠른

palpitate (맥박 등이) 뛰다, 고동치다
throb (심장, 맥박이) 뛰다
vitalize 원기를 북돋다, 활기를 주다
respire 호흡하다, 숨쉬다
perspire 땀흘리다
metabolize 물질대사, 신진대사하다
robust 강건한, 튼튼한
vigorous 힘이 넘치는, 건강한
masculine 남성의, 남성적인
palatable 구미가 당기는, 맛있는

mutate	변화하다
mutation	변화, 변이, 돌연변이
transform	변형되다/하다
evolve	점진적으로 변화하다(진화하다)
revolve	급진적으로 변화하다, 회전하다
radical	급진적인
moderate	온건한
mutilate	(수족 등을) 절단하다, 불안전하게 하다
amputate	(수족 등을) 절단하다
severance	절단, 끊음, 단절
resection	절제술
excision	삭제, 적출
cripple	불구로 만들다
militate	작용하다, 영향을 미치다
émulate	~와 우열을 다투다, 본받다, 지지 않으 려고 애쓰다

convéntional	관습적인
tradítional	전통적인
cústom	관습
stéreotyped	판에 박힌, 진부한
véntilate	(실내)공기를 환기시키다
airy	바람이 잘 통하는, 허황된, 공허한

cóntemplate	찬찬히 보다, 숙고하다
cógitate	숙고하다
consider	숙고하다, ~로 여기다
condemn	비난하다, 정죄하다
contemporary	동시대의, 현대적인

apprehénd	염려/걱정하다, 체포하다
apprehension	염려/불안, 체포
afraid	두려워하는, 섬섬하게 생각하는
intimidate	위협하다, 주눅 들게하다
appraise	(사람,능력 등을)평가하다, 인식하다
apprentice	실습생, 견습생
appendix	부속물, 부록
acclaim	갈채, 환호(를 보내다)
reclaim	교정하다, 개심하게 하다, 교화하다
proclaim	포고, 선언하다

staple	주요한
staple crops	주요작물
principal	주요한, 제 1의
pivotal	주요한, 중추의
primary	첫째의, 주요한
chief	수장, 우두머리
cardinal	주요한, 기본적인, 주홍색의
significant	중대한, 중요한
crucial	결정적인(critical), 중대한
matter(vi)	중요하다, (be important)
fiscal	국고, 재정, 회계의

aggregate	모으다, 모이다, 집합의
aggravate	악화시키다
exaggerate	과장하다
deteriorate	질을 나쁘게 하다, 악화시키다
exacerbate	악화시키다, 화나게 하다
aggressive	공격적인

conspicuous	눈에 띄는, 명백한
obvious	명백한
distinct	별개의, 뚜렷한
manifest	명백한, 명백히 하다, 증명하다
conspire	음모를 꾸미다
suspicious	의심스러운
dubious	의심스러운, 수상한
숙제) suspect와 doubt의 의미차이를 알아보세요!	

coarse	거친, 조악한
sparse	성긴, 희박한, 드문드문한
thin	얇은, 성긴
even	고른, 평평한
delicate	섬세한, 우아한, 고운, 민감한
brutal	잔인한, 육욕적인
wild	야생적인, 거친
coagulate	응고시키다, 응고하다, 굳다
congeal	얼리다, 응결시키다
congenial	마음이 맞는

prospect	전망, 가망
prospective	가망이 있는, 미래의
prospective buyer	미래의 구매자,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post	~이후의, 後
promissing	장래가 촉망되는
would-be	~이 되려고 하는, ~지망의
ex) SG wanna-be	
restospective	
progress	발전, 진보하다
proceed	나아가다, 절차를 밟다
precede	선행(先行)하다

coagulate	응고시키다, 응고하다, 굳다
congeal	얼리다, 응결시키다
cohesive	(글 등이)일관성/응집성 있는
congenial	마음이 맞는, 붙임성 있는, 적합한,,
congenital	(병, 결함) 선천적인, 손 쓸 도리가 없는, 어쩔 수 없는

congenial	붙임성 있는, 마음이 맞는
affectionate	애정이 많은, 다정한
amiable	호감을 주는, 붙임성 있는, 친절함
= affable	
relent	누그러지다, 가없이 여기다
courteous	예의바른, 정중한
homogeneous	균일한, 동종의
amorous	호색의, 연애의
cunning	교묘한, 약삭빠른
agile	기민한, 날쌔
convergence	수렴, 통합
divergence	발산
congenital	(병, 결함) 선천적인, 손 쓸 도리가 없는, 어쩔 수 없는
cogent	적절한, 설득력 있는
contingent	혹시 있을 수 있는, 우발적인, 우연의
congregate	모으다, 집합시키다, 모이다
cogitate	숙고하다, 궁리하다, 고안하다

rehabilitate	회복하다, 재활하다
=recover	
retreat	후퇴(하다), 휴식, 은퇴
retain	보류하다, 보유하다, 유지하다

potent 유력한, 효능이 있는

potential 잠재적인

robust 강건한

pósit 단정하다, 긍정적으로 가정하다

position 위치, 태도

pose 자세, 태도, 주장하다

pore over 곰곰이 생각하다

relevant (당면한 문제에) 관련된, 타당한

relate 관련시키다

relative 친척, ~에 관계가 있는(to)

appropriate 적절한, 적당한 = **apposite**

decent 버젓한

correspond 상응하다, 대응하다

correspondent 특파원, 일치하는, 상응하는

equivalent 동등한, 같은, ~에 상응하는(to)

relegate 추방하다

relent 누그러지다,

relentless 가차없는, 잔인한

regret 유감, 후회(하다)

reproach 꾸짖다, 비난하다

= **reprehend**, **rebuke**, **condemn**, **impugn**

contempt 경멸, 모욕

reckon 판단하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beckon 손짓으로 부르다

fiscal 국고의, 재정적, 회계의

financial 재정적, 재정적인

domestic 가정적, 국내의

tránsient 일시적인, 덧없는

= **éphéméral**

infinite 무한한, 한량없는

eternal 영원한 = **permanent**

perennial 다년생의

immortal 불멸의

transmit 보내다, 발송하다

infést (해충 등이) 물려들다, 만연하다

infestation 출몰, 만연

prevail 우세하다, 유행하다, 만연하다

intéstine 내부의, 국내의, 장의

inféct ~에 감염시키다

inflect 안쪽으로 굴곡시키다

inflict 고통을 주다

afflict 괴롭히다

prívilege 특권

= **prerógative**, **pérquisite**

preréquisite 미리 필요한, 선행되어야 할 것

prestige 명성

pervert 악용/곡해하다, 타락자, 변태

perverse 외고집의, 사악한

pérsecute 박해하다

oppress 압박하다, 억압하다 = **repress**

eliminate 제거하다

condemn 비난하다, 정죄하다

contempt 경멸, 모욕

purge 숙청하다

prósecute 해내다, 수행하다

executive 집행의, 행정의

exult	크게 기뻐하다
jubilation	환희, 환호
felicity	경사, 행복
grateful	감사하게 생각하는
gratitude	감사, 보은
graceful	우아한
exalt	칭찬하다, 찬양하다

cliche	진부하고 상투적인 표현(-d 형용사형)
stereotype	판에 박다, (-d 형용사형)
trite	진부한, 상투적인
stale	(음식이)상한, 신선하지 않은
novel	참신한
outstanding	걸출한, 눈에 띄는
obstinate	완고한, 고집이 센
niche	활동범위, 서식지, 틈새시장
clinch	못박다, (토론의)결말을 짓다, 담판내다
bribe	뇌물, 뇌물을 주다, 매수하다
bride	신부

legitimate	합법적인
legislate	법률을 제정하다, 입법하다
legislative	입법의
regulate	규정, 조절하다
regime	정권, 정부

substantial	실질적인, 물질적인
fundamental	기초의, 근본적인

terse	간결한, 짧은
tersely	간결하게
brief	짧은, 잠깐의, 간결한

executive	행정의, 집행의
execute	(계획 등을) 실행하다
excel	능가하다
exalt	칭찬하다, 찬양하다
exhaust	소진하다, 다 써버리다
exhibit	전시하다

allegedly	(근거 없이)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allege	주장하다
contend	강력히 주장하다, 경쟁하다
claim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다, 주장하다
affirm	확인/단언하다, 긍정하다
assert	단언하다, 주장하다
state	진술하다, 주장하다
articulate	발음이 분명한, 똑똑히 발음하다
elucidate	(문제 등을) 밝히다, 설명하다
enunciate	(학설 등을) 발표하다
attest	~을 증거하다, 입증하다
proclaim	선언하다
declare	선언하다
verify	입증하다, 증명해내다
certify	증명하다, 보증하다
corroborate	(소신, 진술을)확증하다, 입증하다
manifest	명백한, 분명한, 분명히 하다
pledge	서약, 담보, 맹세하다

engrossment	전념, 몰두, 열중
engross	(마음을)빼앗다, 독점하다
gross	합계의, 총계의, 징그러운, 괴이한

assassinate	암살하다, 명예 등을 손상시키다
disgrace	
assail	습격하다, (비난,질문) 추궁하다, 몰아세우다

glean	(사실·정보 등을) 애써[조금씩] 수집하다
assemble	모으다, 조립하다, 집합시키다
gather	모이다
grin	싱긋 웃다 ^_^

transit	통과, 통행, 변천
transition	과도기, 변천, 추이
trespass	침입하다
transmit	보내다, 전송하다

intuition	직감, 직관력
intuitive	직관력 있는
instinct	본능
impulse	충동 (on ~ : 충동적으로)
transcend	초월하다
transcendent	초월, 초탈
tuition	수업료 (tuition fee)
intention	의향, 목적, 의지

comprehend	(완전히)이해하다, 파악하다
comprehension	이해, 터득, 함축
comprehensive	포괄적인, 포용력이 큰
figure out	이해해내다
apprehend	체포하다, 염려하다, 걱정하다
apprehension	염려, 불안, 체포
appraise	(사람,능력 등을) 평가하다

evade	피하다, 회피하다, 교묘히 빠져나가다
= avoid elude	
dodge	교묘하게 둘러대다, 피하다
clever	영리한(부정적인 의미)
dexterous	솜씨 좋은
ingenious	독창적인
adroit	능숙한, 솜씨 좋은
cunning	약삭빠른, 교활한
evangelical	복음의, 복음주의의
invade	침략하다

severalty	개별성, 독단성
several	몇몇의, 각각의
respective	각각의
respectful	예의 바른, 공손한
respectable	훌륭한, 존경할만 한
severe	엄한, 호된, 모진

recollect	회상하다
retrospect	회고, 회상하다, 추억에 잠기다
collect	모으다, 수집하다

attribute ~탓(덕)으로 돌리다, 속성, 특징

=impute, ascribe, accredit

assign 할당하다, 지정하다

property 성질, 특성, 재산

contribute 기여하다(~to)

meadow 목초지

plateau 고원, 안정기, 정체기

hill 구릉, 작은 언덕

widow 과부

contagious 전염성이 있는

infectious 전염성이 있는, 옮기 쉬운

sanitation 위생시설

hygienic 위생적인

inoculate (주사를)놓다, 접종하다, 주입하다

contemplate 명상하다, 심사숙고하다

contaminate 오염시키다

indicate 가리키다, 지적하다, 암시하다, 나타내다

expound 상세히 설명하다

account for 설명하다, ~의 이유가 되다

elucidate (문제 등을) 설명하다, 명료히 하다

elude 교묘히 피하다 = evade

invade 침략하다

conducive 도움이 되는, 공헌하는 (to)

conduce 도움이 되다, 이바지하다 (to)

contribute 기부하다, 공헌하다 (to)

comprehensive 포괄적인, 이해력이 있는

adversity 역경, 불행

ordeal 호된 시련, 고된 체험

unfortuned

challenged 힘이 드는, 만만치 않은
(완곡하게)장애를 가진

unfortuned 불우한 (=less fortunate)

adversary 적, 상대, 대항자

adverse 반대의, 거스르는, (환경 등이)불리한

arboreal 수목의, 나무에 사는

comend 칭찬하다

comment 논평 · 주석 · 해설 (을 달다)

contend 다투다, 경쟁하다, 주장하다

contention 갈등, 논쟁

contentious 다투기 좋아하는

content 만족하는(be~with sth), 내용, 내용물

arbitrary 임의의, 멋대로의, 독단적인

random 임의의

license 면허, 멋대로 함, 방종

take freedom for license 면허, 허가(하다),
(예술,학문 등의) 파격, 방종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다

arbitrate 중재하다

arbitration 중재